

2023 August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7월 동향

미국 고용의 타이트함 등이 긴축 우려를 자극했으나, 미 6월 CPI 큰 폭 하락과 시장 예상에 부합한 FOMC 결과 및 미국 외 주요 중앙은행들의 물가 감소에 따른 동결 기조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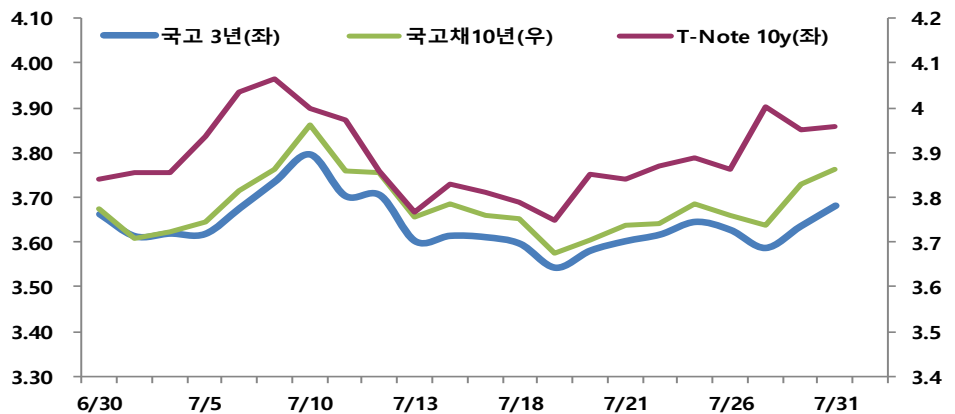
한-미 물가 상승세 둔화 이어지며 주요 하락 재료로 작용. 다만 연준의 매파성향 지속 및 견조한 고용 등으로 추가 긴축 우려감 높아진 점은 상승 전환 요인으로 작용

미 6월 CPI의 3% 진입 등 큰 폭 둔화세 속에 한은의 비둘기적 스탠스 금리동결 및 중국 경기 둔화 국면 인식 등의 영향 반영 속에 큰 폭 하락

미 주간단위 고용지표의 견조함에도 7월 FOMC의 비둘기적 해석 요인 등에 따라 국고채 금리 하락

- 월초, 미국 5월 PCE 물가 완화 영향과 국내 2%대 물가지표 하락 속에 호주 중앙은행 금리 동결 등이 반영되며 하락 출발 후,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 의사록과 여전히 견조함을 보인 미 민간 고용 호조 등이 연준 추가 긴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
  - 월 초, 미 5월 PCE 지표가 3.8%(전년동월비) 상승에 그친 가운데 국내 역시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 시현한 영향이 반영되며 국고채금리 하락 출발. 이어 RBA의 금리 동결 결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근원 PCE가 여전히 더딘 하락추세를 보인 가운데 매파로 해석된 6월 의사록과 미 ADP 민간 고용지표의 견조함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가 반영된 점이 금리 상승 전환 요인으로 작용
- 중반, 여전히 타이트한 미국 고용 상황 등이 긴축 우려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6월 CPI 큰 폭 둔화, 중국 성장을 예상치 하회, 영국 물가지표 둔화 등의 요인 반영 속 큰 폭 하락
  - 중반, 6월 미 고용지표 둔화에도 실업률 하락에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고용 인식 등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반영하며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이후, 미 6월 CPI 3%로의 감소와 한은 금통위의 비둘기 성향 반영되며 크게 하락 전환. 여기에는 대외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 2분기 성장 지표와 영국 물가지표 둔화세 강화도 영향 요인으로 작용
- 후반, 미 주간실업보험 청구 건수 감소 등 여전히 견조한 고용지표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가 반영되었지만, 7월 FOMC가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견인 속 국고채금리도 하락 마감
  - 후반, 미국 주간단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며 타이트한 고용 지속 인식에 따라 연준이 긴축 속도를 지속할 것이란 우려에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 하지만 7월 FOMC가 연내 금리인하 배제 등 일부 매파적 성향이 있었음에도 향후 동결 가능성 시사 등이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 후, BOJ의 YCC 유연성 확대 영향 등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 속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7월 평균  
국고채(3년): 3.64%  
T-Note(10년): 3.89%

## 8 월 전망

연준 향후 통화정책의 금리 동결 가능성 강화 속 국내 물가 재반등 가능성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 측면 고려한 한은 금리 동결 유지 예상 등이 국고채금리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46	3.38	3.60 <sup>(F)</sup>	3.40 <sup>(F)</sup>

9월 이후 통화정책에서의 금리 동결 기조 전환 가능성 시사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요인이나 여전히 물가의 기저효과를 감안 시 추가 긴축 여지도 남아있음에 금리 변동성 확대에 주의 必

국내 경기에 대한 저점 통과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최근 IMF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

8월 국고채(3Y) 금리는 3.55%~3.70% 예상

- 7월 FOMC가 일부 매파성향 지속을 내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9월 이후 데이터에 근거할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선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대외적 국고채 금리 하락 견인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7월 FOMC에서 연내 금리인하 배제와 높은 물가 수준이 2025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피력함에 따른 매파 성향이 있었음에도 9월 이후 데이터에 근거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비둘기 측면 또한 부각된 측면에 따라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된 국면
  - 하지만 여전히 물가의 기저 상황을 고려할 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 국고채 금리의 빠른 하락 국면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타진 속에 국내 경기도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점진적 수출 회복 등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IMF가 국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측면의 상황 인식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적 미국의 2분기 성장을 견조세 등이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하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방 흐름에 영향 가능성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국내 경기도 무역수지 적자 추세 탈피 속 하반기 수출 경제 회복 기대 등 저점 통과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IMF 국내 성장 전망 1.4% 하향에 따른 상황 인식 고려 시 여전히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물가 2% 진입 후 재차 반등 가능성에도 대외적 인플레이션 수입 제한과 한은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로의 전환적 정책 및 금융불안과 유동성 우려에 대한 개선책 등을 고려할 때, 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은 국고채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국내 물가가 2%대에 진입하였지만, 대내적 식료품 가격 상승 및 기저효과 등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대외적 인플레이션 수입 제한 요인 등에 따라 금등 양상 제한될 것으로 예상
  - 한은은 이러한 상기 요인 반영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불안과 유동성 개선 대응책을 수립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추가 긴축보다는 기존 동결 유지가 예상되는 점이 국고채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2Q GDP 견조함 등에 따른 추가 긴축 가능성</li> <li>국내 경기 상황의 저점 통과 인식 등</li> <li>미국 물가의 기저 감안시 재상승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li> <li>IMF의 국내 성장 전망 하향 속 여전히 상존한 국내 경기 불확실성 상존</li> <li>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 유지 가능성 등</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7월 동향

미 물가지표 연속 둔화에 따른 긴축 중단 기대 속 1,260원대로 하락 시현. 7월 FOMC 25bp 금리인상 결과가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주요국 대비 매파적 기조와 연착륙 기대감에 따른 달러 강세가 하단을 지지

미국 물가지표 하락세 이어짐에 따라 연준 금리인상 중단 기대 분위기 속 환율 1290원대로 하락했으나, 6월 FOMC 의사록 내 추가 긴축 가능성 부각되며 1300원대로 재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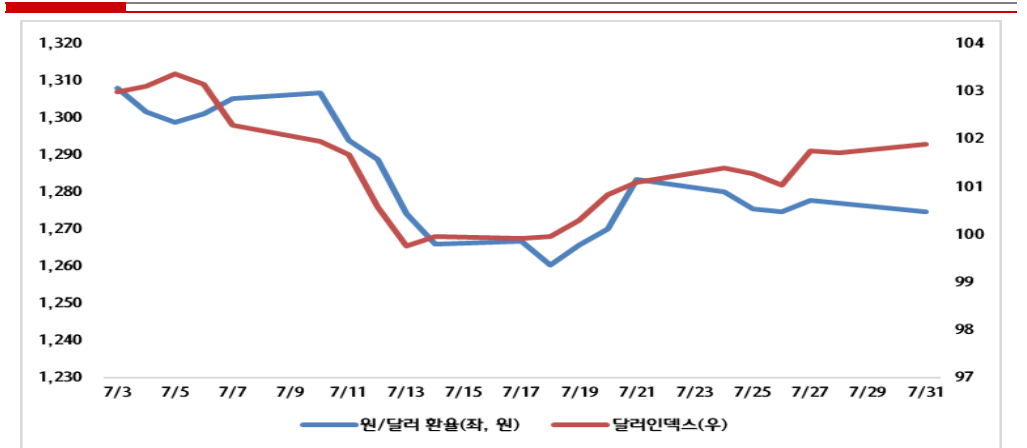
미 6월 CPI가 연이은 둔화 추이 보임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환율은 1,26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고용 호조 등이 긴축 경계감 자극하며 환율 상승 전환

7월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ECB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부각됨에 따라 달러 강세 나 타났으나, 미 6월 PCE 둔화로 인한 달러 약세 영향 반영하며 1,270원대 진입

- 월초, 미 물가상승 압력 둔화 양상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중단 전망 강화 속 환율 하락 출발했으나 연준의 긴축 지속 의지 재확인, 글로벌 경기불확실성 우려 확대 등에 상승 전환
  - 월초, 미 1분기 GDP 호조로 경기침체 우려 완화된 가운데 5월 PCE 둔화 확인 후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 속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며 환율은 하락 출발
  - 그러나 6월 FOMC 의사록에서 재확인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상승 전환 후 예상치 하회한 중국 경제지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영향 더해지며 1,300원대로 재차 상승
- 월 중반, 둔화된 미 6월 CPI 확인 후 연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환율 급락했으나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조짐과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상승 전환
  - 중반, 미 6월 CPI 3.0%로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며 큰 폭 감소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동결 전망 강화되며 달러인덱스 100선 아래로 하락하는 등 달러 약세 흐름 속 환율은 1,260원대로 급락 시현
  - 미국에 이어 유로존,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난 디스인플레이션 조짐과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에 긴축 경계감 확대되며 달러 강세 전환 영향 속 환율은 1,280원대로 되돌림 양상을 보임
- 후반, 시장 예상에 부합한 7월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결정 후 달러 약세. 이어 주요국 정책회의결과 소화 후 연착륙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영향 속 1,270원대에서 마감
  - 후반, 7월 FOMC 금리인상 확실시되는 측면 선반영되며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25bp 금리인상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ECB의 금리동결 가능성 시사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전환
  - 이어 미 2분기 GDP 호조로 인한 연착륙 기대감 속 달러 강세 이어졌으나 6월 PCE 3.0%로 큰 폭 둔화된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로 환율 하락 압력 우위 보이는 가운데 1,274.6원으로 마감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283.1  
7월말 달러/원 환율 : 1,274.6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 8 월 전망

연준이 9월 이후 통화정책에서 동결 가능성 제시한 측면 등이 달러 약세 자극할 전망. 다만, 미국 물가의 기저효과 감안시 재상승 우려 상존한 점과 주요 글로벌 통화 약세 추세는 원화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1,310	1,270 <sup>(F)</sup>	1,250 <sup>(F)</sup>

7월 FOMC를 다소 비둘기적으로 인식한 시장의 위험 선호 반영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하지만, 7월 물가가 전년 대비 낮은 기저에 따라 재반등할 가능성 상존 등은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판단

- 현 미국 물가 수준이 다소 긴 시차를 두고 이어질 것으로 연준이 전망했음에도 금번이 마지막 인상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한 시장 기대 선반영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할 전망. 다만, 차후 물가가 기저효과에 의해 감소세가 반전될 수 있는 여지는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판단
  - 7월 FOMC에서 향후 높은 수준 물가가 '25년까지 이어질 공산 클 것으로 전망한 연준이 금리인하를 완전 배제한 분위기는 매파 성향이나 동결 기조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다소 비둘기로 해석된 부분
  -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가 보통 속도로 확장 중임을 제시한 연준 시사와 향후 데이터에 근거, 동결 가능성을 비친 측면을 고려 위험 선호 경향을 강화할 전망. 하지만, 차후 물가가 자이언트 스텝 시점 낮은 기저로 인한 물가 감소세 반전 가능성이 상존한 점 등은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판단

경기 대응력 강화 모색하는 ECB 물가 대응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 속 일본 통화정책도 금리상한 유연성 이후 엔 약세 전환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원화강세 제한될 전망

- ECB 통화정책이 경제 하방압력 방어 의지를 높이면서 점차적 물가 안정화 가능성에 따라 동결 기조 전환 예상되는 가운데 7월 금정위 이후 엔화의 달러 대비 강세 동력이 약화된 점 등이 글로벌 통화 관점에서 원화 강세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경기 대응력 강화 추진하는 ECB 통화정책이 최근 독일 등 주요국가 물가 하락세를 반영하며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연준과 속도 차별화 요인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최근 BOI 금리 상한 유연화 정책에도 정보 영향 기반영 속 추가 긴축이 제약적일 것으로 관측되는 측면 등이 원화 강세 제한에 영향을 미칠 전망

8월 달러/원 환율  
1,265원 ~1,290원 예상

- 대내적 하반기 수출 회복력이 다소 미미한 가운데 중국 성장 부진이 이어지는 측면 등이 자체적 원화 강세 모멘텀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7월 연준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측면도 원화 강세 동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예상외 중국 성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 회복력도 당초 전망과 달리 미미한 상황. 이를 반영 IMF의 한국 수정 전망이 기존 1.5%에서 1.4%로 하향한 측면 등이 우호적 대외요인 영향을 제한하며 원화 강세 탄력도 약화시킬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7월 연준의 베이비 스텝 단행에 따른 한-미 금리차 사상 최대인 200bp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 등도 원화 가치 강세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효과 감안하 물가의 재상승 가능성</li> <li>· 주요 통화의 약세 흐름에 따른 달러 강세</li> <li>· 한-미 금리 사상 최대 역전폭 관련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선반영</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BOI 통화정책 유연화 정책이 실질적 긴축의 의미를 내포했음에도 시장 선반영 등으로 강제 흐름 단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판단. 여기에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 기대 약화 등으로 140엔대 상향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1.0  
7월 엔/원 평균환율 : 909.9

8월 엔/원 예상범위 : 895-915원

- (엔화 동향) BOI의 완화정책 고수 의지 영향으로 엔화 약세 흐름 이어졌으나 미 6월 비농업부문 고용 다소 둔화된 점이 연준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 완화시키며 강제 전환. 중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정책 수정 가능성 제기된 측면이 엔화 강제 견인했으나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 영향으로 약세 전환. 후반, 일본 근원CPI 전년대비 3.3% 증가한 가운데 YCC 정책 유연화로 급격한 강제 보였으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에 약세 전환되며 마감
- (엔/원 전망) 7월 FOMC에서 '25년까지 물가 2%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내 금리인하를 배제한 부분이 매파적이었음에도 9월 이후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시장 기대 강화에 의한 전반적 달러 약세 흐름이 엔화 강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7월 금정위의 수익률 곡선 통제 상하한폭 확대가 실질적 긴축으로 해석된 점도 단기적으로 직접적 엔화 강세를 유도하겠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에도 경제체질 약화 등으로 추가 정책 변경에 대한 시장 기대 약화되며 7월 정책 정보가 선반영된 점은 엔화 약세 흐름 되돌림에 영향 미칠 전망
  - 차후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에 따라 달러 약세 영향이 엔화 강제 견인 대외 요인으로 판단되나 연내 금리인상 배제 시사 등에 따른 매파 성향 시점 등에서 엔화 강제 제한될 전망
  - 반면, 7월 금정위의 유연한 정책 변경의 선반영 속에 여전히 높은 물가, 약한 경제 체질 등에 따른 추가 긴축 가능성 약화 등으로 재차 엔 약세 전환 예상 속 엔/원 환율도 재차 895-915 수준 예상

## 유로/원 전망

독일 등 유로존 내 주요 국가들의 물가 감소세가 진전되는 상황 속에 ECB의 경제 하방 압력 대응에 따른 금리인상 사이클 전환 예상 등이 유로화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058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18.9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20~1,445원

- (유로화 동향) 유로존 6월 CPI 둔화된 가운데 6월 FOMC 의사록 내 연준의 긴축 지속 의지 나타나며 유로화 약세 출발했으나 미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이 상대적으로 더 매파적 스탠스 보일 것이라는 우려 다소 완화되며 강제 전환. 중반, 둔화된 미 6월 CPI 연준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 높아지며 강제 이어졌음에도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ECB위원 비둘기 발언에 약세 전환. 후반, ECB의 25bp 추가 인상에도 9월 금리동결 가능성 시사에 약세 흐름 강화되며 마감
- 미국 등 주요국 대비 경제회복력이 뒤처지며 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방어 의지가 있는 ECB 통화정책이 점진적 물가 안정화 가능성에 따라 인상 사이클 전환이 예상되는 측면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반면, 7월 FOMC 이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연준 정책 영향에 의한 달러 약세 가능성 등은 유로 약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유로존 물가 다소 둔화 추세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약화 지속 등 경제 하방 압력 계속되며 유로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이에 ECB는 차후 통화정책 이후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
  - 유로/원은 7월 FOMC 이후 원화 변동성 높아졌음에도 유로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에 1,400원 전후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8월] 주요이슈</b> RBA 통화정책회의(8/1) BOE 통화정책회의(8/3) 미국고용보고서(8/4) 미국CPI(8/10) MSCI분기리뷰(8/10) FOMC7월의사록공개(8/16) 한미일정상회의(8/1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8/24) 연준잭슨홀미팅(8/24-26)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속보지, [F]-확정치, [A]-잠정치, ( )안은 미전지	<b>1 RBA 통화정책회의</b>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0%로 동결 한 7월 수출/입(YoY -6.0%/-11.7%) 미 6월 건설지출(MoM +0.9%)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7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ISM 제조업지수, 고용, 신규주문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8.2) 중 7월 Caixin 제조업 PMI(50.5) 유 7월 제조업 PMI[F], 실업률(6.5%) 일 6월 실업률(2.6%)	<b>2</b> 한 7월 CPI(YoY +2.7%), CPI 근원(YoY +4.1%) 미 7월 ADP 취업자 변동(497k) Challenger Job Cuts(YoY +25.2%)	<b>3 BOE 통화정책회의</b> BOE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00%로 50bp 인상 (2) BOE, 가장 먼저 긴축 나서 금리 13회 연속 인상 미 2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P](QoQ -2.1%) 6월 제조업수주, 내구재주문 7월 S&P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 ISM 서비스 지수, 고용, 신규 주문 중 7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2.5, 53.9) 7월 수출, 수입 YoY(-12.4%, -6.80%)	<b>4 미국 고용보고서</b> 미 7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209k) 실업률(3.6%), 시간당 평균임금 유 6월 소매판매(YoY -2.9%)	<b>5</b>
<b>6</b> 일 7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	<b>7</b> BOJ 7월 요약문 공개 미 FED Bostic, Bowman 연설 미 6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8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22.5) 일 6월 동행지수, 선행지수[P]	<b>8</b> 미 6월 도매재고, 도매무역 판매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 중 7월 수출/입(YoY -12.4%/-6.8%) 일 6월 실질 임금총액, 가계 소비지출	<b>9 지준일</b> 한 7월 실업률(2.6%) 중 7월 CPI(YoY +0.0%), PPI(YoY -5.4%) 통화금급 M2(YoY +11.3%) 일 7월 공작기계 수주[P]	<b>10 MSCI 리뷰, 미국 CPI</b> [MSCI 분기 리뷰] (1) MSCI 지수의 조정은 받지 변경(5, 11월)과분기 변경(2, 8월)로 이루어짐 (2) 중국 편입은 유동 시가총액, 유동비율 등이 가장 많이 반영됨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7월 CPI(MoM +0.2%, YoY +3.0%) CPI 근원(MoM +0.2%, YoY +4.8%) 일 7월 PPI(MoM -0.2%, YoY +4.1%)	<b>11</b> [휴장] 일본(산의 날) 한 6월 통화금급 M2(MoM -0.3%) 8월 1-10일 수출입(YoY -14.8%, 26.9%) 미 7월 PPI(MoM +0.1%, YoY +0.1%) PPI 근원(MoM +0.1%, YoY +2.4%)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P] 미시간대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7월 공작기계 수주[F]	<b>12</b>
<b>13</b>	<b>14</b>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사임	<b>15 한국휴장</b> [휴장] 한국(광복절) 미 6월 기업재고 7월 소매판매 추정 수입물가(MoM -0.2%, YoY -6.1%) 수출물가(MoM -0.9%, YoY -12.0%)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1) 중 7월 광공업생산(YoY +4.4%), 소매판매(YoY +3.1%), 실업률(5.2%) 일 2Q GDP(QoQ +2.7%, YoY +0.7%)	<b>16</b> FOMC 7월 의사록 공개 미 7월 주택차관금수(MoM -8.0%) 건축여가(MoM -3.7%)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8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유 2Q GDP, 고용(QoQ +0.6%YoY+1.6%) 6월 산업생산(MoM +0.2%, YoY -2.2%)	<b>17</b> 한 7월 수출물가(MoM -2.8%, YoY -14.7%) 수입물가(MoM -3.4%, YoY -15.7%) 미 7월 선행지수(MoM -0.7%) 일 6월 핵심기계수주(MoM -7.6%, YoY -8.7%) 7월 수출/입(YoY +1.5%/-12.9%) 호 7월 실업률(3.5%)	<b>18</b> 안미일 정상회의 : 안보, 경제, 교류문제 포괄 논의 예정 유 6월 건설 생산(MoM +0.18%) 7월 CPI[F](MoM +0.3%, YoY +5.5%) CPI 근원[F](YoY +5.5%) 일 7월 전국 CPI(YoY +3.3%) 국내 CPI 근원(YoY +3.3%)	<b>19</b>
<b>20</b>	<b>21</b> 한 8월 1-20일 수출입(YoY -15.2%, -28%)	<b>22 브릭스 정상회의(~24)</b> [브릭스(BRICS) 정상회의(~24)]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경제 블록. 홀메 의장국은 남아공 (2) 이번 회담에서 탈달러와 움직임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통화 발행 논의할 전망 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7월 기준주택매매(MoM -3.3%) 8월 플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9.1)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b>23</b> 미국 공화당 첫 대선 경선 토론회 한 8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7월 신규주택매매 8월 S&P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유 8월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소비자자기대지수 일 8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b>24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잭슨홀</b>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5%로 4연속 동결. 연내 동결 기조 이어질 지 주목 (2) 시장은 금리 인상 파급효과와 인플레이 둔화, 금융안정 리스크 등 고려시 금리 동결 예상 한 7월 PPI(MoM -0.2%, YoY -0.2%)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b>25</b> 미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F] 미시간대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7월 PPI 서비스 8월 도쿄 CPI, 도쿄 CPI 근원 독 2Q 독일 실질 GDP	<b>26</b> [연준 잭슨홀 미팅(~26)] (1)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경제 심포지엄. 각국 중앙은행 총재 등 참여 (2)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자리
<b>27</b>	<b>28</b> [휴장] 영국(뱅크홀리데이) 미 8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6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b>29</b> 미 2Q FHFA 주택가격지수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7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7월 실업률, 유호구인배출	<b>30</b> 미 2Q GDP, 개인소비 7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미결주택매매 8월 ADP 취업자 변동(497k) 유 8월 소비자, 경기자기대지수 산업, 서비스 자기대지수 일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호 7월 CPI YoY(5.40%)	<b>31</b> 한 7월 광공업생산 미 7월 개인소비, PCE, PCE 디플레이터 8월 Challenger Job Cuts MNI 시카고 PMI 중 8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8월 CPI, CPI 근원, 실업률 일 7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P] 주택차관금수 독 8월 독일 실업률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